

프랜차이즈 산업 시장분석 및 대응전략

윤남수*

세종사이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nsyoon@sjcu.ac.kr

서론

국내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1979년 롯데리아를 시작으로 30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괄목한 만한 성장을 거듭하였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5년 기준 매출규모 약 61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이나 산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11개 유망 지식서비스 업종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산업을 선정하여 육성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는 등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산업이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이고도 실효성있는 정책의 실행이 필요하며, 업계에서도 가맹사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내 영업 위주의

* 저자 학력, 경력 및 최근 연구:

- 세종대학교 경영학박사
- 한국외식산업학회 상임이사,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자문위원
- 벤처 비즈니스의 이해와 창업(2008)
- 외식산업에서 배우는 고객알기 전략(2007), 프랜차이즈 업체별 마케팅믹스 요인 활동의 차이분석(2006), 외식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만족도에 미치는 도구적 요인과 관계지향성 요인의 영향(2005) 외 다수

영세성에서 벗어나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새로운 시장기회를 창출하고 우수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가 세계 프랜차이즈협회(WFC) 정회원으로 가입되고, 2010년 아시아-프랜차이즈협회(APFC)와 세계 프랜차이즈협회(WFC) 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글로벌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최근 국내 경제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내수경기 부진과 높은 실업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은 어려운 국내 경기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대안이다. 본고에서는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경제적 역할

프랜차이즈(가맹사업)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포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가맹사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금전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프랜차이즈 산업은 다양한 장점을 갖춘 비즈니스 형태로서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미국 상무부에서는 프랜차이즈 방식을 금세기에 출현한 가장 창조적인 마케팅 기법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실제로 미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성장하여 전 세계에 미국의 고유한 문화를 전파하는 동시에 많은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가맹점 모집을 통한 규모 확장이 가능하며, 자금조달이 유리하고, 가맹점에 의한 위험분산이 가능하다. 또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어 다른 산업에 비해 짧은 기간에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국내에서도 프랜차이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프랜차이즈협회(IFA)의 보고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산업의 매출과 고용효과는 연관 산업에 2배의 파급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한다. 프랜차이즈는 소규모 창업이 가능하여 가맹사업자 자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을 고용함으로써 실업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한, 미국의 맥도날드의 사례에서 보듯이 해외시장 진출을 통해 자국의 문화를 알리고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경기 침체시 그 수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와 같이 국내 경제가 어려울 때 프랜차이즈 산업은 창업활성화 및 실업률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분석

프랜차이즈 산업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알려진 맥도날드의 브랜드 가치는 무려 293억 9천 8백만 달러로서 브랜드 가치로 보면 세계 8위 수준이다. 미국은 프랜차이즈 산업이 가장 발달된 국가로서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도소매 및 외식분야 이외에도 사업서비스, 건강 및 개인관리, 금융 등 지식서비스 산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전체 소매의 5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관산업을 포함하면 총 고용의 15.3%, 총 임금의 12.5%, 그리고 총산출의 11.4%를 프랜차이즈 산업이 담당하고 있다.

〈표 1〉 미국의 프랜차이즈 산업규모 및 비중

(단위: 명, 억 달러, %)

구 분	프랜차이즈산업	미국경제 내 비중	프랜차이즈산업 및 연관산업	미국경제 내 비중
고 용	11,029,206	8.1	20,974,636	15.3
임 금	2,786	5.3	6,609	12.5
총산출	8,809	4.4	23,100	11.4

자료: IFA, "Economic Impact of Franchised Business," 2005.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프랜차이즈가 국내에 도입된 1979년 이후 매년 급성장하였다. 국내 가맹본부 수는 2005년 2,211개로서 2002년에 비해 38.2%가 증가하였다. 업종별 증가율은 서비스업이 124.1% 증가하여 502개 수준이나 규모면에서는 외식업이 1,194개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식업 프랜차이즈는 전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54%

를 차지하여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외식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국의 28.9%, 일본 39.8% 수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으로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외식업 위주에서 서비스업을 비롯한 다양한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표 2>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가맹본부 수

업종	2002년(개)	2005년(개)	증감률(%)	비고
외식업	559 (34.9%)	1,194 (54.0%)	113.6	
소매업*	817 (51.0%)	515 (23.3%)	-37.0	식품소매업 포함
서비스업	224 (14.0%)	502 (22.7%)	124.1	
계	1,600 (100%)	2,211 (100%)	38.2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맹사업자 수는 2005년 기준 총 284,182개로서 이는 2002년도에 비해 137.6%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외식업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져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02년에 비해 약 179.1% 증가한 141,992개로 늘어났다. 이는 이 기간 중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생기면서 신규창업이 증가하고 자영업, 특히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표 3>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 수

업종	2002년(개)	2005년(개)	증감률(%)	비고
외식업	50,873(42.5%)	141,992(50.0%)	179.1	
소매업	44,175(37.0%)	87,511(30.8%)	98.1	식품소매업포함
서비스업	24,575(20.6%)	54,679(19.2%)	122.5	
계	119,623(100%)	284,182(100%)	137.6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지역별 가맹점 구성비는 서울지역 24%, 경기/인천 27.2%, 부산/경남 19.3% 등으로서 가맹점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가맹점은 2002년도 32.6%에서 2005년 24%로 다소 비율이 낮아졌으나 3년 만에 74.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기인천을 비롯한 여타 지방에서의 가맹점 개설은 2002년도 67.4%에서 76%로 늘어났다. 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지방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지방에서 가맹점 창업이 늘어나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시스템적 관리

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의 동일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가격과 품질이 동일하며, 이러한 점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때문이다.

〈표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지역별 분포

지역 구분	2002년	%	2005년	%
서울	39,019	32.6%	68,204	24%
경기/인천	25,947	21.7%	77,298	27.2%
대전/충청	11,872	9.9%	21,882	7.7%
광주/전남	9,705	8.1%	30,407	10.7%
대구/경북	10,489	8.8%	15,630	5.5%
부산/경남	17,227	14.4%	54,847	19.3%
강원	3,896	3.3%	12,788	4.5%
제주	1,468	1.2%	3,126	1.1%
계	119,623	100%	284,182	100%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국내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매출액 기준 2002년 41조원에서 2005년도 61조 원으로 47% 성장했으며, 고용인원도 56만 6천명 수준에서 100만 6천명 수준으로 78% 증가하였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성장하였다고는 하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크며, 2010년 매출 114조원, 2013년 150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명목 GDP 대비 매출 비율도 2010년에는 9%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표 5〉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전망

항목	2002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3년
매출(조원)	41.69	61.31	78.70	114.46	148.97
명목 GDP(조원)(a)	684	841(b)	984	1,244	1,574
명목 GDP 대비 %	6.09	7.28	7.99	9.19	9.46
가맹본부 수(개)	1,600	2,211	2,675	3,186	3,794
가맹점 수(개)	119,623	284,182	343,860	409,543	487,772
상시 종업원 수(명)	566,094	831,726	1,006,388	1,198,625	1,427,581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5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 2005.

업계의 실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7월 소비자기대지수는 84.6으로 석달째 기준치 인 100을 훨씬 밑돌았다. 이는 지난 2000년 12월의 81.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소비심리가 얼어 붙으면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업계가 외식업이다. 우리나라 전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가맹본부 기준 54%, 가맹사업자 기준 50%가 외식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 업계의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업계에서 호소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문제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08년 상반기 중소기업 자금사정'을 조사결과, 중소기업의 65.7%가 자금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정은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점 창업시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창업자의 80%가 퇴직금 등 본인 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이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따르면 경기악화와 조류인플루엔자(AI),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절반 가량이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으나, 고유가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까지 인상되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가맹점들 가운데도 창업을 하면서 은행 대출을 받은 곳들이 많아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내의 프랜차이즈 산업은 대부분의 가맹본부 및 가맹점 규모가 영세하고 브랜드 파워도 약할 뿐만 아니라 정보화, 물류공동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가 약하여 취약한 경쟁구조를 가지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은 이미 국내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임을 고려할 때 중산층 육성이나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활성화 방안

정부의 정책은 그동안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위주로 추진되어 프랜차이즈 산업은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지 못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개정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사업 진흥을 위한 정부차원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고, 가맹사업의 인프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정보화, 공동물류화,

기술개발, 전문인력,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가맹사업 창업자에게는 창업 및 가맹사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수아이디어 발굴과 포상, 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투자촉진과 고용창출을 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개정된 법에서는 정보공개서 등록과 가맹금예치제가 시행되었는데, 이는 가맹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창업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 창업을 활성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정부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의 실행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산업이 창업 활성화나 신규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외식업 뿐만 아니라 도소매업, 서비스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프랜차이즈 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고급 인력을 많이 배출해야 한다. 프랜차이즈는 지식서비스 산업이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의한 사업이다. 따라서 기능이라는 하드웨어보다 지식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대부분 영세하고 사업 인프라가 취약하다보니 우수한 인력이 모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 맥도날드의 경우 가맹점관리자의 교육을 위해 미국교육협회가 정규대학 학점으로 인정한 학위과정을 제공하는 Hamburger University를 운영하고 있으며, 마케팅, 화학, 요리 등 21학점 취득이 요구되고 매년 5,000명 이상이 수강을 하고 있다. 또한, IFA(국제프랜차이즈협회)에서는 온라인 Franchise University 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프랜차이즈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일부 컨설팅회사의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에서는 장안대학, 용인송담대학 등 2곳의 전문대학과, 세종사이버대학교에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종대학교에 프랜차이즈석사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전문화된 프랜차이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전문 교육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자금조달 문제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는 대부분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

문도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의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낮은 관심도에도 원인이 있다. 이런 이유로 핵심기술을 보유한 벤처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대출방식에 의존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동 투자설명회 개최, 정부의 투자지원 등을 통해 건실하게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울시 경제와 프랜차이즈

2008년도 하반기 서울시 경제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5.2%, 하반기 3.3%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3.1%, 하반기 2.3%로 상·하반기 모두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전국의 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서울지역의 경기 상황이 전국에 비해 더 어려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나 가맹본부 및 가맹점의 숫자는 서울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가맹점의 경우 전국의 24%인 68,204개가 서울지역에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숫자이다. 또한, 가맹본부는 전체의 57.8%인 1,279개가 서울지역에 몰려있다. 이처럼 가맹본부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서울지역이 그만큼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유리한 지역적 이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6〉 서울소재 프랜차이즈 업체 현황

구분	지역	2002년	%	2005년	%
가맹본부	서울	1,174	73.4%	1,279	57.8%
	전국	1,600	100%	2,211	100%
가맹점	서울	39,019	32.6%	68,204	24%
	전국	119,623	100%	284,182	100%

자료: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서울지역의 뛰어난 비즈니스 인프라, 시장규모, 그리고 지역적 인지도를 고려할 때 프랜차이즈 사업은 향후 서울지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는 소상공인이 대부분이며, 자금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특별보증제도를 운영하여 창업한 자영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지원은 2007년 6월 현재 1만 466개 업체에 대해 1,914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에도 소상공인 경제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표 7〉 자영업자 보증지원 현황

연도	보증업체(개)	보증금액(억원)
1999	246	74
2000	1,106	369
2001	2,957	953
2002	5,592	1,662
2003	8,483	2,702
2004	7,504	2,469
2005	2만 4,855	4,191
2006	1만 697	2,972
2007.6	1만 466	1,914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프랜차이즈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 이외에 교육, 컨설팅 등이 정책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서울산업진흥재단의 창업스쿨 교육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위한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프랜차이즈 창업자 상담이나 경영컨설팅 등은 서울시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수단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삼성경제연구소, “서비스 산업의 동반성장 방안: 프랜차이즈,” SERI경제포커스, 184호, 2008. 3.
-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5년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연구: 프랜차이즈편,” 2005.
- 산업자원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한국프랜차이즈총람” , 2002/200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8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 “SDI정책리포트, 2008. 6.
- IFA, “Economic Impact of Franchised Bsiness,” 2005.